

5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도계품 소비자의 신뢰 얻어야

2월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육계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한지 2개월이 넘어서도 올라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부로일러업계는 물론 부화, 사료업계에까지도 영향이 파급되어 가고 있다.

왜 이러한 불행이 왔나에 대해서는 전호에 설명되었거니와 아직도 이를 해결키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 생산자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에서 축협을 통해 채화된 물량을 비축해 준다고 해도 그 물량은 최고 500t정도로 서울시 3일분 물량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비축물량이 앞으로 가격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부로일러산업을 발전시키는것 보다도 생계진 열과 밀도계를 없애는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오지 않았나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식품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는 오랜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든 탑은 단 한번의 실수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때 과자에 표백제 롱가리드가 함유되었다는 보도가 정상의 제과공장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불량식품업체로 만들고 말았다. 을지병원 사건으로 우유소비가 감퇴하는 등 소비자는 식품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알수 있다.

얼마전 TV 보도에 닭에서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울여름 도계유통을 앞두고 걱정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만일의 경우 상한 닭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매스컴이 바빠지지 않도록, 하절 성수기를 앞두고 위생적인 도계와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한의사들에 의한 한약복용중 닭고기 기피와 함께 도계품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5월중으로 사업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82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이달 중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기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추계과세의 경우에는 총의형액을 산출해서 국제청에서 발표한 82년도분 소득표준율을 곱해서 소득액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고 축산을 시작한했수에 따라 50%의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82년도 소득표준율은 다음과 같다.

82년도 소득표준율

일련번호	종 목	구분	적용구분	기본율
11	낙농 및 육우 사육		1억원 미만	8
			"이상	8.8
12	양 돈		1억원미만	10
			"이상	11
13	양 돈		1억원미만	18
			" 이상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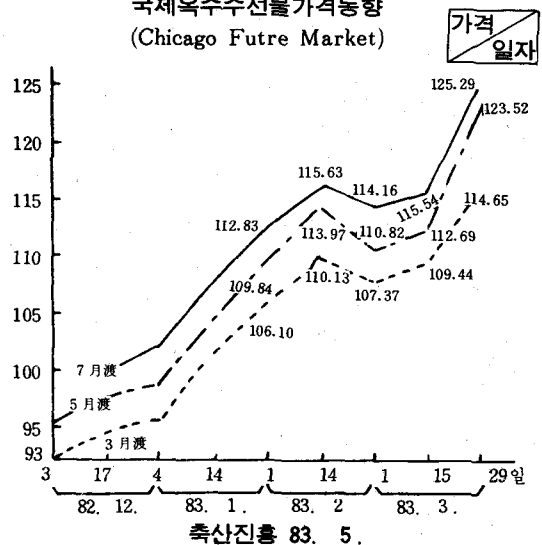
14	기타 가축 및 가금 사육	양 계	" 미만	10
			" 이상	11
		사슴	1억원미만	14.5
			"이상	15.9
	기타	1억원미만	12.5	
		1억원이상	13.7	
(14)	(기타 가축 및 가금 사육)	(기타)	1억원미만	(12.5)
			1억원이상	(13.7)

옥수수가격 계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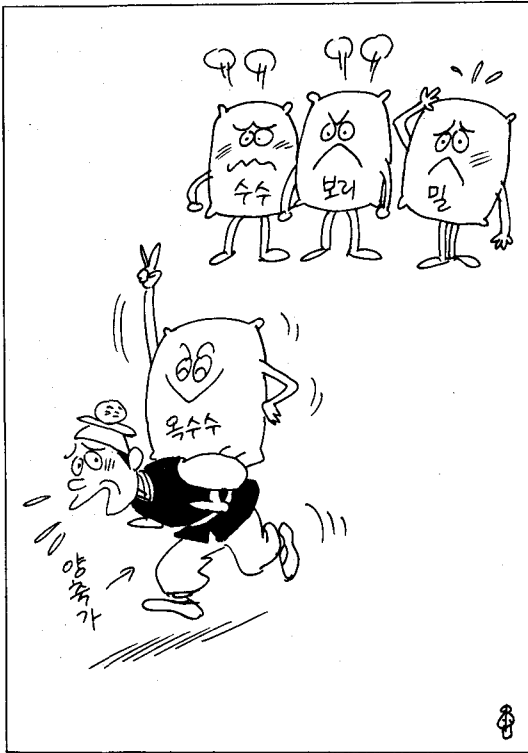
배합사료중 옥수수의 비율이 70%선까지 높아짐으로써 양축가들이나 사료공장으로서의 국제옥수수 가격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톤당 120\$선에 구매하여 안정기준가격을 인

국제옥수수선물가격동향
(Chicago Futre Market)



축산진흥 83. 5.



하하라고 요구한 것이 몇 달전 일인데 이제는 안정기준가격 135\$에 비해서 160\$선에 구매한다고 하여 기준가격 인상설이 벌써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상시기를 현재 초임기에 들어갔다고까지 말할 정도다.

인하는 어렵지만 인상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양축가들은 안정기준 제도로 혜택을 보는지를 실감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묶어 놓았다가 일시에 대폭상승해서 충격을 주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옥수수 외에 다른 곡류중에는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품목도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옥수수 일변도로 나갈수 밖에 없다. 73년 제1차 석유 파동후 뒤따른 곡물파동때 우리나라 축산이 맛보았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선과 품목의 다변화를 굳세게 외쳐왔지만, 문호를 닫아놓고 외쳤기 때문에 더욱 옥수수 일변도로만 되고 말았다.

곡류 품목간 관세율의 차이와 의제매입 제도 적용, 안정기준가격적용 등 지나치게 옥수수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또 양축가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지나치게 병적일만큼 옥수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감히 사료공장에서 경제적인 사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지 못하고 이해는 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용 원료구매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곡물 종별 이용율

(1979/1980)

(단위 : %)

구분	옥수수	밀	보리	수수 및 기타	사료곡물 사용량
					(천톤)
미국	79	1	3	17	139,200
캐나다	25	8	35	32	18,000
EC 9개국	31	17	39	13	70,500
스페인	-	46	46	8	13,600
동구라파	47	18	22	13	72,000
소련	16	44	30	10	123,000
일본	57	1	8	34	16,700
세계평균	47	16	21	16	474,000
한국 (83년현재)	90	-	-	10	3,000

광고하지 않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잡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광고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캄보디아의 대학살이나 방글라데시의 참혹한 굶주림 등이 마스크의 보도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것이며, 만일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영영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채 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광고가 없으면 그러한 물건이 있는지조차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이유방박사(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초청 세미나에서(5월 3일, 안양) 미국에서는 닭고기가 값이 싼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지방이 적은 건강 식품이라는 뜻에서 소비가 급신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란의 경우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소비가 감퇴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매스컴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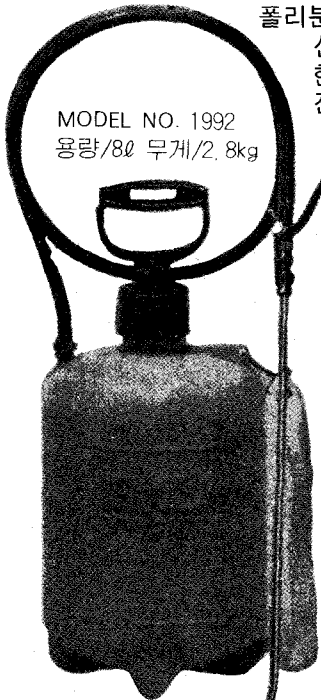
올바로 전해지느냐 또는 전해지지 않느냐에 따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생산자들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도 생산자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홍보비를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지(無知)는 결국 닭고기와 계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소비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마련 등 제도적인 장치를 할 때가 왔다.

경제적이고 사용간편한 공기압축식

폴리분무기

폴리분무기는 미국 루트로우엘사가 신개발한 세계적인 인기품으로 한협상사가 수입, 국내 시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MODEL NO. 1992
용량/8ℓ 무게/2.8kg



MODEL NO. 182N
용량/6ℓ 무게/2.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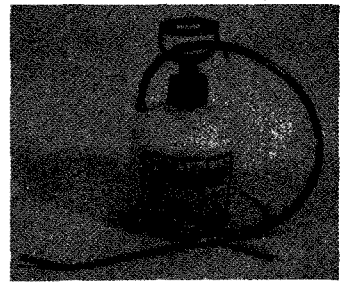
● 폴리분무기에는 임의로 분무를 조절할 수 있는 낫쇠노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탱크는 견고한 폴리에틸렌제로서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에도 변질·파손되는 일이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 양축농가의 필수 장비로서, 값이 저렴하여 아주 경제적입니다.

● 부품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MODEL NO. 1991
용량/4ℓ 무게/1.8kg



수입
발매원 **한협상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192-1 전화 244-2618